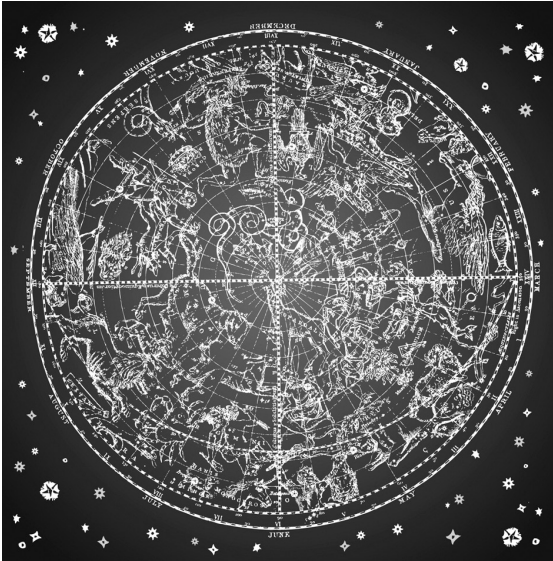


인간의 본체와 수련

| P. D. 우스펜스키 | 오성근 옮김 |

인간은 마차-말-마부-주인과 같은 구조로 된 존재이며 풀어보면 육체-감정-마음-본질의 순이니, 육체와 감정, 감정과 마음, 마음과 본질 사이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혼돈 속에 빠져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인간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조직입니다. 이 네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도 하며 잘못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차는 말과 끌채로 연결되어 있고, 말은 마부와 고삐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부는 주인과 주인의 목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부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부는 마차를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말은 고삐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또 말은 마차에 잘 매여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조직의 네 부분 간에는 3개의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림 1) 이 연결점들 중 무엇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조직은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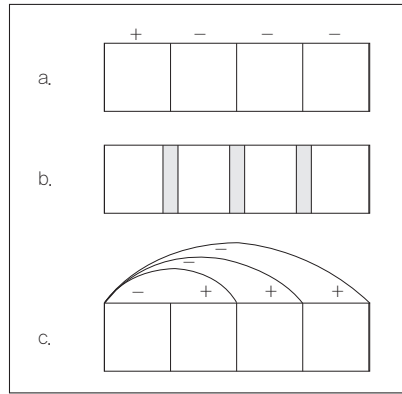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로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점들도 실제의 ‘본체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수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체들’과 ‘연결점들’에 동시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자기 수련은 마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부는 마음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마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졸지 않아야 합니다. 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인이 마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부는 이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배우면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마부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모는 것과 말을 마차에 단단히 매는 것, 말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것, 그리고 마차를 고장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

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마부가 주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마부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마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게 먹이를 먹이지 않았고 마차에 단단히 매어 놓지 않았으며 고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차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육신을 끌어당겨 감정대로 움직이게 하므로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수련이 나아가야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체들’에 대한 수련, 즉 마부, 말, 마차에 대한 수련과 ‘연결점들’에 대한 수련, 즉 마부와 주인을 연결하는 ‘마부의 이해’, 마부와 말을 연결하는 ‘고삐’, 말과 마차를 연결하는 ‘끌채’와 단단히 매는 ‘마구’에 대한 수련은 모두 아주 다릅니다.”

“본체들은 상당히 양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연결점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전 조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덜 발달된 본체들의 경우와 같이 전 조직은 어쩔 수 없이 밑으로부터, 즉 주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2개의 본체를 가진 인간의 경우에는 두 번째 본체가 육체에 비해 활동적입니다. 이는 ‘영체’의 의식이 육체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르지에프는 ‘영체’ 위에 +표시를, 육체 위에 -표시를 했다. (그림1, c)

“3개의 본체를 가지는 인간의 경우에는 세 번째 ‘정신체’가 ‘영체’와 육체보다 활동적입니다. 이것은 정신체에 있는 의식이 영체와 육체보다 완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르지에프는 정신체 위에 +표시를, 영체와 육체 위에 -표시를 하고 하나로 묶었다.

“4개의 본체를 가지는 인간은 네 번째 본체가 활동적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본체에 있는 의식이 정신체, 영체, 육체보다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르지에프는 네 번째 본체 위에 +표시를, 나머지 3개를 한데 묶은 위에 -표시를 했다.

“보다시피 네 가지의 완전히 다른 상황이 존재합니다. 육체가 모든 기능을 지배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육체가 활동적입니다. 육체에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수동적입니다.(그림1, a) 두 번째 본체가 육체 위에 힘을 가지는 경우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경우는 정신체가 영체와 육체 위에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본체가 3개의 본체 위에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마지막 경우입니다. 육체만을 가지는 인간의 경우에는 그의 여러 기능 간의 기능이 감정, 사고,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육체적 기능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육체적 기능과 감정을 지배할 수도 있고 의식이 육체적 기능과 감정, 사고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2개, 3개, 4개의 본체를 가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본체가 가장 오래 삽니다. 즉, 가장 활동적인 본체가 보다 낮은 본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한한’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빛을 다시 그렸으며 지구 옆에 인간의 육체를 표시했다.

“이것이 보통의 인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1, 제2, 제3, 제4의 인간 말입니다. 그는 육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육체는 땅에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먼지이므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러

한 종류의 인간을 가지고 어떠한 ‘무한성’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두 번째 본체(그는 모든 행성들 옆에 두 번째 본체를 그렸다)를 가진다면 이 두 번째 본체는 행성 세계의 물질로 구성될 것이며 그것은 육체가 죽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한 의미에서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 역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두 번째 본체는 육체와 함께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세 번째 본체(그는 태양 옆에 세 번째 본체를 그렸다)를 가진다면 이 세 번째 본체는 태양의 물질로 구성될 것이며 영체가 죽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본체는 별들의 세계에 있는 물질, 즉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 물질로 구성될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태양계의 범위 내에서 결정화된다면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이 태양계 내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네 번째 본체를 가지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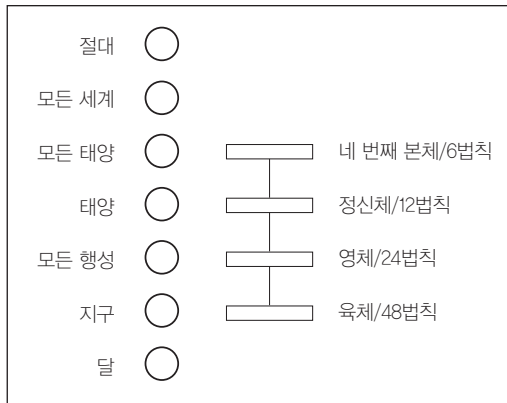


그림 2.

간은 태양계의 범위 내에서는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2)

“그러므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가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왜 바로 대답할 수 없는지 알겠지요? 무한한 사람도 있고 유한한 사람도 있으며, 무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모스크바로 떠난 후 우리는 우리끼리 만났다. 우리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 우리가 최근에 구르지에프에게 들었던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내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는 기적의 개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절대적은 우리의 세계에서 그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과 이러한 절대적 의지는 기계적인 법칙의 형태로서만 그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계적인 법칙을 어기고는 절대적 의지를 우리의 세계에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중 누가 맨 처음 이 이야기를 기억해 냈는지 모르겠다. 비록 아주 점잖은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잘 알려진 이야기였고 이 법칙을 바로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학생이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신학교에서의 이야기였다.

“자, 하느님도 할 수 없는 것의 예를 들어 보아라.” 시험관이 물었다.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느님도 보통의 듀스로는 트럼프의 에이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¹⁾

더 이상 명백한 것은 없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 속에 수천 가지의 신학적인 명제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게임의 법칙이 게임의 본질을 만든다. 이 법칙이 흐트러지면 게임 전체가 망가진다. 듀스로도 트럼프의 에이스를 이길 수 있는 하느님처럼 절대적 법칙을 벗어나 우리 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적으며, 절대적은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우연히 만들어지는 여러 원인들의 당연한 결과 자리에 다른 결과를 대신 놓는다. 투르게네프가 어디에선가 쓰기를, 보통의 모든 기도는 하나로 요약할

1) 그는 듀스로도 에이스를 이길 수 있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다.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하느님, 들 곱하기 들이 넷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있었던 트럼프 이야기와 똑 같은 것이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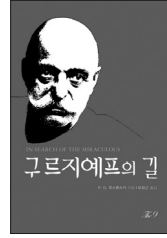
- 이 글은 《구르지에프의 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P. D. 우스펜스키** Pyotr Demianovich Ouspensky | 1878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공립학교에서 공부했고, 1906년에 모스크바 일간 신문인 The Morning의 편집 업무를 보았고, 1913년 가을 35세 때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 동방으로 여정을 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구르지에프를 만났다. 우스펜스키는 1915년에 페테르부르크에서 구르지에프를 만난 후, 8년 동안 그가 창안한 이론적 체계와 기법을 사사하였다. 1924년에 독립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구르지에프의 이론 체계를 25년 동안 가르쳤다. 1909년에 그의 첫번째 책인 《The Fourth Dimension》을 출간한 후로 《Tertium Organum》, 《A New Model of the Universe》, 《Strange Life of Ivan Osokin》등을 집필하였다. 러시아 혁명 후 이스탄불을 거쳐 영국에서 구르지에프의 가르침을 강의하면서 《In Search of the Miraculous》를 저술하였다.

역자 | **오성근** | 1951년 전남 법성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고심해 오다 10여 년간 영국에서 살면서 구르지에프를 알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을 천착해 가던 중 자기완성을 통해 하느님과의 결합이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 의미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기완성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세 가지 성스러운 길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 헤르메티카》를 번역하였고 한국에니어그램협회의 고문이다.

구르지에프의 길

P. D. 우스펜스키 지음 | 오성근 옮김 | The9(더나인) | 값 30,000원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영적 스승으로 손꼽히는 구르지에프와 제자가 나누는 우주와 인간에 관한 대화의 기록을 담은 책으로 러시아의 저널리스트이자 수학자였던 우스펜스키가 1915년에 모스크바에서 구르지에프를 만나 그가 지도했던 모임에 참가하여, 구르지에프와 모임의 구성원 간에 있었던 강의와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 우스펜스키는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대륙이 전화에 휩싸인 와중에 구르지에프와 만난 이후 8년 동안 그의 길을 따르면서 이론 체계를 배웠다. 이 책은 우스펜스키가 구르지에프 모임에서 들었던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으로 우스펜스키 사후에 그의 부인이 구르지에프의 허락을 받아 1949년 뉴욕에서 출간되었다.